

2000년이후 가계 빚 4.5배 ↑

가구당 4천만원...대부분 부동산 구입에 써 부채 이자상환 부담 증가 가계 유동성 초래

2008 경제학 국제학술대회 발표

2000년 이후 국내 가계의 부채가 약 4.5배로 크게 늘었고, 이 빚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를 유발했으며 경영이 투명해진 재벌그룹일수록 경영성과도 매우 높다는 실증 분석

이 나왔다

전승훈 국회에 산정책자 경제분석관과 임병인 충북대 교수는 19일 연세대에 서 열린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2000년 이후 가구 자산구성 및 자산불평등도 변화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따르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한 가

의 평균 총 자산은 1억1천250만원에서 2억8천112만원으로 149.9%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구당 총 부채가 877만원에서 3천948만원으로 350.2%나 급증함에 따라 총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의 증가율은 133.0% 그쳤다.

자산 세부 항목별로는 부동산평가액이 8천138만원에서 2억1천604만원으로 165.5% 늘고 주택 보증금을 포함한 저축 총액이 3천112만원에서 5천745만원으로 84.6%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가운데서도 거주에 필요한 주택자산 증가율은 110.9%에 불과한 반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이외 부동산'의 증가율은 323.3%에 달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많은 가구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식에 나섰고, 가구 평균 총부채 증가율이 경상소득 증가율의 약 3배에 이른다는 점은 2000년 이후 자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차입에 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부채 이자 상환 부담 증가는 앞으로 가계 유동성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진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양극화와 낮은 경제 성장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니계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에서 1996년까지 평균값

은 0.279에 불과하나 1999년 0.315로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여전히 0.3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소득의 분배율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 재벌 지배의 심화,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사립대 경제학부)과 이재형 서울대 BK21 사업단 부교수, 최영영 서울대 BK21 사업단 연구원은 이날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9개 재벌의 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고정효과집단법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자기자본 수익률(ROE)에 대한 투명성의 유의수준이 5% 지표중 가장 높아 경영이 투명해진 재벌 기업집단일수록 경영성과도 매우 높음을 나타냈다.

코스피 한달만에 1700선 탈환

코스피지수가 한 달 만에 1,700선을 탈환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24.28포인트(1.43%) 오른 1,720.52로 장을 마감해 지난 달 21일 종가기준으로 1,700선이 붕괴된 지 한 달 만에 1,700선 탈환에 성공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6.04포인트(0.92%) 오른 660.75에 마감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지수 상승의 견인차는 전날 유입 증시의 상승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유입증시는 영국의 모기지는행인 노던록의 국유화 소식에 동반 급등해 영국의 FTSE 100지수가 전일 대비 2.75% 급등한 5,946.60, 독일의 DAX지수가 1.98% 오른 6,967.55로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해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0.90%, 토픽지수는 0.92% 상승했으며, 대만의 가권지수는 1.69% 상승한 8,024.41로 마감해 한달 만에 8,000선을 탈환했다. /연합뉴스

1월 수입물가 21% '굉충'

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 여파 1998년 이후 최고 수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1.2% 상승,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치솟았던 1998년 10월(25.6%) 이후 9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5.2%, 10월 7.5%, 11월 13.7%, 12월 15.6%로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3.0%로 지난해 12월(1.7%)보다 높아졌다.

수입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한 것은 환율상승과 원자재·곡물 가격의 양등으로 원자재(3.9%)와 중간재(2.7%)가 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달 87.24달러로 1년간 68.6% 급등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원유 등 원료광물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수입물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인 12.63%에 달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본재(2.1%)와 소비재(2.3%)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수출물가는 전월에 비해 1.8%,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 상승했다. /연합뉴스



라면 사재기

농심이 20일부터 신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가격을 100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광주출플러스 계열점에 라면을 사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출플러스 계열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면 1천200박스를 팔아 평소와 비해 두배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韓銀 “美 경제 하반기 회복”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저점을 통과한 후 하반기에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과거 '최근의 미국 경기상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 경제는 상반기중 경기침체 또는 침체에 버금갈 둔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연간 성장률은 2001년 침체기(0.8%) 이후 가장 낮은 1%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들은 미 경제가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정책금리의 추가인하, 대선을 앞둔 행정부 및 의회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순수출 개선 등이 (하반기)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침체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미분양 아파트 12만 가구 넘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 가구를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 비수기인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프레드뱅크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12만783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 규모였던 지난 달 11만3천345가구에서 불과 한 달 새 6천338가구(6.1%)나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170가구로 전

국에서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구 1만7천295가구, 부산 1만2천170가구, 경북 1만1천356가구, 경남 1만455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 1월 이후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경기도로 3천387가구 증가했으며, 이어 강원도 1천578가구, 충남 1천292가구, 대구 1천799가구, 전남 504가구, 부산 499가구, 전북 301가구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경남(-541가구), 울산(-425가구), 충북(-252가구), 광주(-84가구), 경북(-44가구), 제주(-19가구), 대전(-17가구)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했다. /연합뉴스

MB정부 기대감... 채용 늘린다

매출 상위 120개사 지난해 계획보다 6.7% 증가

대기업들이 '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난해 말 수립했던 올해 채용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12개 업종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79개사의 60.8%가 '올해 채용계획을 확장했다'고 답했다.

이들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1만5천6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이 채용한 1만4천621명보다 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거침없이 친기업적 행보를 보인 때를 전후로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 규모가 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기업 채용규모를 발표한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 초 대기업 1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에서는 올해 채용규모가 0.1% 증가할 것으로, 즉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잡코리아가 공동으로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채용계획을 확장한 272개사의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중순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 가운데 28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채용 계획을 확정지은 161개사의 신규채용 규모가 2만4천765명으로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지난달 초 취업포털 커리어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9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는 채용계획을 확장한 47.3% 기업의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삼성전자 1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됐다.

1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따르면 산업계 간부 4천720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일반 소비자 4천560명 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체 산업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혁신능력,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까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전체 산업에서 상위 30대 기업을 꼽은 '올스타(All Star)' 기업과 56개 산업군별 1위 기업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올스타 기업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포스코와 유한킴벌리·유한양행·LG전자·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SK텔레콤·안철수연구소·삼성물산 등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두산중공업(72위→17위)과 두산인프라코어(77위→29위), 출플러스(52위→14위) 등은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올스타 기업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온라인쇼핑몰 구매

'여성 입김' 최고

여성들이 온라인쇼핑몰 구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오픈마켓 육선에 따르면 최근 자사회원 9천21명을 상대로 지난달 말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2%가 "가전제품 구입시 여성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가전제품 구매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항목에서도 전체 여성 응답자의 53.4%, 남성 응답자의 42.5%가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고 답해 단독 구매 결정력 역시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40.3%가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으나 여성 응답자가 상대 남성을 영향력이 큰 경우로 꼽은 비율은 2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1조원대 법인세 추징 위기

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다. 합병과정에서 얻어낸 세액 감면이 세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종 과세판정은 국세청이 내리게 되지만 2002년 서울은행을 매각한 정부도 합병시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각 5년여 뒤 벌어진 세금난립의 책임을 면할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

은행의 합병방식이 법인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역합병의 조건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주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인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는 것과 함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된다. 이중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으나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 여부가 논란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림직업전문학교	2008년 국비무료교육생(매월 훈련수당 지급)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2	062-529-3000
서울생활공동여행사	여행사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2/21	062-225-3636
첨단심리병원	원무과 접수수납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1	062-601-2131
광운	LCD, LED조립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22	062-956-9881
남해종합개발	경력사원 모집(건축/기계/안전/전기/소방/관리/경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220-2514
우진엔지니어링	현장승리기 설치공사 엔지니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25	010-6254-2655
아이티엔지니어링(주)	[광주]DBA 개발경력자	초대졸/경력6년	4000~5000	02/25	02-6383-3931
삼성진검제	경리직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943-8115
ING생명(본세)	[본사공제]남여상담원-월3000이상-중식제공(교육시)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2/26	02-3452-2612
한샘 호남팀	한샘부위기구 대리점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2/26	062-383-1601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분야별 정규직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670-2584
㈜포노이앤디	광고기획/카피라이터 신입/경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7	062-383-1370
㈜기엠미디스	영업부 사원(사원, 과장급)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952-9442
엔케이테크(주)	[SK엔가]광주직접 및 경력 차량 평가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2/29	02-754-6435

(광주직접회사 512-6210 제공)

1월중 외국인 관광객 48만명

문화관광부는 올해 1월 한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4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과 대만인 관광객이 1월에 각각 8만677명과 3만2천541명이 방한해 지난해 동기보다 40% 이상 늘어난 가운데 태국(1만4천132명)과 말레이시아(5천616명)도 20%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1월에 15만3천122명이 한국을 찾는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가 줄었다. 한편 1월의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지난해보다 3.2%가 늘어난 132만명으로 월간 총출근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